

시인 권환의 공백기에 대한 고찰

- 감옥살이부터 박간농장(迫間農場) 생활을 중심으로 -

이 홍 숙*

| 목 차 |

- I. 머리말
- II.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살펴 본 권환의 투옥 과정과 옥살이로 인한 공백기
- III. 권환의 활동의 공백과 박간농장(迫間農場)
 - 1. 출소 직후의 박간농장(迫間農場) 行
 - 2. 박간농장행과 관련된 연구 검토
 - 3. 아버지 권오봉(權五鳳)과 박간농장(迫間農場)
 - 4. 권환과 아버지와의 관계
- IV. 박간농장 퇴직 후
- V. 결론

| 국문초록 |

시인 권환의 활동에는 공백기가 존재한다. 1934년 6월 20일 검거를 비롯해서 1939년 1월 9일 박간농장의 퇴직 기간까지가 그 기간이다. 이 기간은 크게 두 시기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하나는 검거로 인한 옥중수형기간이고 하나는 출옥 후 박간농장에서의 생활기간이다.

* 인제대학교 융복합문화센터 연구위원 / julia6164@hanmail.com

옥중생활은 권환의 《新建設》 가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카프활동을 비롯하여 왕성한 활동을 해 오던 권환은 1934년 6월 23일자 《조선일보》에 지난 21일 좌익극단 신건설 간부들이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있고 권환의 아버지가 쓴 《성재 일기》의 같은 해 7월 1일자일기에는 6월 20일 수색을 당하고 전주지법으로 압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권환의 공백기의 시작은 1934년 6월 20일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과정을 거쳐서 1935년 12월 9일 징역 1년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출옥한다.

권환은 1935년 12월 30일 고향 경남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어 1936년 1월 4일 경남 김해군 진영으로 갔다가 1월 5일 아버지를 찾아뵙고 진영으로 곧 바로 진영농장으로 돌아간다. 권환이 진영으로 간 것은 누이동생 집으로 요양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박간농장에 취직을 하여 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버지 권오봉과 농장관리자인 김경진과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권환이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 된다. 권환은 진영의 박간농장을 거쳐 다시 1936년 7월 9일 김해군 가락면의 박간농장으로 간다. 그리고 1939년 1월 9일 박간농장을 퇴직하고 곧바로 서울로 간다. 여기까지가 권환의 공백기다. 출소 이후의 공백기는 집행유예기간을 박간농장에서 보낸 것으로 정리된다. 이상의 사실은 아버지 권오봉의 일기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공백기 이후 서울로 간 권환은 《조선일보사》에 취직을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버지의 일기에 아버지가 서울에 가서 아들에 만나기 위해 《조선일보사》에 전화를 하여 퇴근 여부를 확인하거나 만나는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환의 상경직후 당시의 권력자 김경진도 서울로 가서 권환을 만난다는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1940년 8월 25일자 《경성제국대학》에 취직했다는 경환의 편지를 받았다는 아버지의 일기는 《조선일보》 퇴직 이후의 과정으로 정리 된다.

권환의 공백기의 행적 중 박간농장 행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진행된 것으로 정리했다. 아버지의 인맥에 기대어 집행유예기간을 박간농장의 관리직을 맡아서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주제어 : 시인 권환, 권환시인의 공백기, 카프활동, 박간농장, 권오봉, 김해군 가락면, 창원군 진전면

I. 머리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권환 연구에서 권환의 공백기를 실제자료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권환이 차지하는 역사적 비중은 매우 크다. 근대라고 하는 격동기와 일제식민지라고 하는 암흑기, 그리고 이념적 혼돈기라 할 수 있는 시기가 맞물려 있던 시기에 누구보다도 선각적 위치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작가이기에 우리 문학의 역사에서 권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1934년 초반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던 권환의 행적에 관한 자료는 당시의 신문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대표적 일간지였던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1920년대 중반부터 1934년 초까지는 가히 권환의 시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이론가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왕성했던 그의 활동을 1934년 중반 이후부터 1938년까지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주로 신문 기사를 통해 문화예술계 인사로서 알려지던 그의 활동은 1934년 6월 이후부터 1935년까지의 기사들에는 수색이나 구속 등과 같은 내용으로 등장한다. 그러다가 1936년 이후 1938년까지는 아예 기사로도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위의 약 5년간의 기간을 권환의 공백기로 정하고 이 시기를 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권환의 공백기는 권환의 창작활동의 공백기이자 사회활동의 공백기를 말한다.

창작활동과 사회활동이 중단된 시기를 두 시기로 구분할 때 첫째는 투옥 즉 옥살이 기간이고 두 번째는 박간농장의 취직 기간이다.

공백기에 대해 당시의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권환은 1934년 6

월 20일에 투옥되어 1935년 12월 19일까지는 감옥에 있었고 1936년 1월 4일부터 1939년 1월 9일까지는 박간농장에 있었다.

권환의 이 같은 공백기의 수감생활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그간의 연구자들은 이 기간을 투병 및 요양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추정성 글을 발표한 일이 적지 않았다. 이것은 감옥생활로 인해 몸이 많이 쇠약해졌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출옥한 후 요양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거기다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친지들의 주장도 한몫을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권환이 외부의 탄압으로 인한 시대적 피해자로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동정적 시각과 연민의 관점도 내포되어 있어서 읽기에 따라서는 권환이 무척 병약하고 가련한 존재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것은 권환의 공백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권오봉일기》¹⁾를 통해 권환의 공백기의 행적에 대하여 보다 신빙성 있는 정리를 하고자 한다.

먼저 권환의 검거와 투옥, 그리고 석방에 이르기까지의 신문기사를 살펴보고 그 다음 권환의 박간농장행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 작업은 권환의 행보를 이해하는데 보다 진실보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1) 誠齋日記 權五鳳 壬申九月二十五日始 권오봉의 일기는 성재일기라는 제목으로 시작된다. 1932년 9월 25일부터 시작하여 1957년까지 약 25년간의 기록이다. 誠齋는 權五鳳(1869~1959)의 호다. 본 고에서는 <역주 성재일기 간행 추진위원회>의 허락 하에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 일기는 직접 손으로 쓴 것으로 모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II.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살펴 본 권환의 투옥 과정과 옥살이로 인한 공백기

카프를 결성하고 왕성한 활동을 해오던 권환은 1934년 6월 21일 신건설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수색을 당하고 전주지법으로 압송 당한다.

1934년 6월23일 조선일보는 “左翼劇團 新建設 幹部等 七名 檢舉”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다. “21일 오후 다섯시 경에 평양경찰서 서원구명은 돌연 시내에 나타나서 본정 경찰서 용원을 어더가지고 -(중략)- 평양모 좌익극단 사건의 관계인듯하다고 하며 ---취조가 끝나는 대로 곧 평양으로 압송하리라고 한다”가 그 내용이다. 제목에 신건설이 좌익 극단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 기사에는 권환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권환의 아버지 권오봉의 일기에는 권환이 6월 20일 수색을 당하고 전주지법으로 압송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²⁾

1932년 8월 7일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신건설의 결성은 1932년 8월 7일 전으로 확인 된다.

프로레劇團 『新建設』 結成 來九月初公演이라는 제목과 함께 “정당한 프로레타리아 演劇 建設을 目標로 하여 이제까지 소위 좌익적 극단들이 가진 불성실성을 배제하고 활발한 연극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극단 신건설이 결성되어 구월하순에는 첫공연을 중앙에서 가지라는데..”라는 기사가 발표 되었다. 이 기사에는 연구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위의 기사에는 권환이 단체의 문예부에 소속되어 있다.

9월 하순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나 32년 10월 13일자 동아 일보 기사에는 공연이 연기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2) 『權五鳳日記』, 七月一日 晴 午前 鄭載禧自京下來 口傳完兒被檢消息.

“劇團 新建設 公演 延期”라는 제목 하에 “시내 안국동 18번지에 사무소를 두고 제일회 공연을 준비중이던 극단 신건설은 십월 상순에 공연할 예정이었던 바 극단 수뇌부의 검속으로 인하여 공연을 연기 하얏다 한다.”라는 기사를 발표 한다.

기사에 따르면 신건설은 결성과 동시에 수뇌부의 검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뇌부의 검속으로 인하여 공연을 연기하얏다’는 내용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듬해 ‘새로운 극단 신건설 출현’이라는 제목과 함께 진영을 정돈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조선일보 1933년 1월 7일 기사가 그것이다.

“대중의 지지와 성원 땀해서 싹트엇든 극단 신건설(劇團 新建設)은 그동안 공연을위하여 만반의준비를 진행하든중 돌연동극단수노부의 검속으로 말미암아 사무가일시 정체되엇스나 이제다시 새해를 마지하여 새로운 출발로서 건전한거름으로 나아가기위하여 진용을 다시 정돈하고 월 15일에...레파트리..權煥作『朱生員』奎一幕”라는 기사를 보도 했는데 “새로운 극단 신건설 출현”이라는 제목하에 진용을 정돈하고 이 월중순공연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극단 결성에 이어 이듬해 1933년 2월 중순에 공연 프로그램에 권환의 작품『주생원』 전일막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체명 앞에 ‘새로운’이라는 표제는 검속으로 인해 조직을 정비하고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일제가 강제로 단체결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1933년 2월 23일의 기사는 공연이 또 다시 연기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劇團 新建設 公演 四月 十五日로 延期”라는 제목과 함께 “..演出部 裝置部 出演部 責任者들 五六人이 不得已한 事情에 잇는 몸이 되고..”

내부 사정으로 제1회 공연이 4월 15일로 연기되었다는 내용이다. 내

부사정은 끊임없이 수뇌부 관계자의 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동아일보 1933년 11월 22일 기사에는 미루고 미루던 제 1회 공연을 1933년 11월 22일에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에는 각색자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눈에 띈다. 일본인 촌산지의(村山智義)가 각색하고 장소도 배재강당에서 본정 삼정목 연예관(구경성극장적)으로 옮겨서 공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출연자 명단에 임화의 부인 이귀례가 들어 있다.

당시의 신문은 신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제 1회 공연을 시작으로 몇 차례 더 공연을 이어간 것으로 보도 하고 있다.

1934년 4월 16일에 인천공연에 관한 기사가 있고 순회공연차 5월 1일부터 2일간 왕십리 광무극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5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던 중 1934년 5월 15일 신건설 간부 8명이 검거되었다는 내용이 1934년 5월 1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있다.

이를 전초로 해서 1934년 6월 21일 오후 다섯 시 또 한 번의 검거가 있었고 이 때 권환도 수색을 당하고 검거가 되었다. 이 때부터가 사실상 권환의 공백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후의 기사는 검거와 취조로 이어진다.

1934년 동아일보 7월4일자 기사에는 “新建設 事件 本格的으로 取調”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다. 이어진 동아일보 1934년 11월 23일자 기사에는 얼굴 사진과 함께 대대적인 검거가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

당해 기사에 따르면 이 같은 검거와 취조는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기소로 이어 졌다.

조선일보 1935년 1월 26일자 기사에는 “이십사명만 기소하고 이십오명은 불일석방과 함께 신건설 사건 일단락”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카프의 멤버-와뫼트 그십과들을 망라하여 표면 『신건설』(新建設)이

라는 표면 합법연극운동단체를 조직하여가지고 내면으로는 연극을 수단으로 하는 지하운동을 획책하다가 그것이 전북경찰부에 탐지한바 되어 다수좌익문사와 연극배우등을 검거 취조하였슴은 루보한바이니와 ..”의 내용과 함께 기소명단에 權景完이 포함된 내용의 기사가 발표되었다.

이렇게 기소된 권환은 1935년 10월 28일 공판을 거쳐 1935년 11월 2년의 구형을 받는다. 이 내용은 조선일보 1935년 11월26일자 기사에 나와 있다.

그 후 이어 1935년 12월 9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다. 1935년 12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에는 權景完이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선고를 받은 권환은 1935년 12월 19일 전주 형무소에서 나와 1935년 12월 30일 고향 오서리로 돌아온다.³⁾ 1934년 6월 20일 전주지검으로 압송 당한 후 35년 12월 19일 풀려나기까지 1년 6개월 여 간을 감옥에서 지낸 것이다.

권환과 관련자들이 풀려 난 것은 카프 및 신건설의 해체계 제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건설 조직의 강제 해체는 소위 말하는 좌익 활동가들의 활동을 강제로 해체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1935년 6월 5일자 동아일보에 카프해체와 함께 신건설의 해체 기사가 나와 있다.

동대문 경찰서 고등계 주임과 형사가 요양 중인 임인식(임화)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권고하였으나 주저하였고 경찰의 계속되는 해체요구에 맹원들이 집회를 통해 논의를 한 끝에 대표 임인식의 명의로 해체계를 고등계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실질적인 카프해체의 과정을 기

3) 같은 날 권오봉 일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1935년 12월 19일 -十九日 晴 午前 景完兒自全州來謁.

록한 기사다.

뒤이어 가맹단체 신건설도 금명간 해체계를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져 있다. 관련하여 1935년 6월 6일자 기사에는 신건설의 해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권환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은 이와 같이 일본정부의 강제적 해산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상은 권환의 공백기 중 옥살이 기간의 진행과정과 시작 그리고 집행유예선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당시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신문의 기사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권환은 《新建設》과 관련된 탄압이 계속되는 과정을 거쳐 1934년 6월 20일 전주지점으로 압송을 당했고 이 때부터 옥살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35년 12월 9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19일 전주 감옥에서 나와 12월 30일 경남 진전면 오서리의 고향집으로 찾아온다.

정확한 옥살이로 인한 권환의 공백기는 1년 6개월여 기간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정리한 일련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일제가 프로문학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기 위해 철저히 기획을 하고 점차적으로 활동에 제제를 가해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일제의 탄압의 대상은 프로문학의 이념이 아니라 프로문학가들의 식민지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었다는 사실이다.

일제에 대한 저항적 행위를 탄압하고자 그들의 이념을 매우 위험하고 불순한 것으로 매도하였고 검열을 받고 수색을 받아 감옥에 가야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설정된 프로문학에 대한 이와 같은 구도는 훗날 문학사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권환의 활동의 공백과 박간농장(迫間農場)

1. 출소 직후 박간농장(迫間農場) 行

1935년 12월 9일에 전주교도소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12월 19일 전주 감옥에서 나온 권환은 12월 30일 고향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1936년 1월 4일 김해 진영으로 간다. 이 때 진영으로 간 것은 하자마 농장에 취직하여 간 것으로 보인다. 권환은 이튿날 1월 5일 진영에서 아버지를 뵈러 오서리에 간다. 아버지 권오봉의 일기에는 경완이가 진영에서 보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진영에 거처를 정하고 아버지께 인사를 하러 온 것 같다.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진영의 박간농장 사무국에 취직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1936년 7월 9일 부터는 진영에서 가락의 박간농장으로 옮겨 간다. 그리고 1939년 1월 9일 박간농장을 퇴직한다.⁴⁾

형무소에서 풀려난 권환은 집행유예 기간을 김해의 하자마 농장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숙 권오엽의 진술을 토대로 1942년 무렵 근간에는 김해 농장원으로 지냈거나 손아래 처남인 허담의 집에서 요양을 했다는 황현의 주장⁵⁾은 사실이 아니다. 이순욱은 황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그가 인용했던 시집 『倫理』의 著者略歷을 인용하면서 권오엽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하게 원문에는 없는 ‘근간’이라는 말을 삽입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⁶⁾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황현의 1942년 무렵 근간에 김해 농장원으로 지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이 때 권환은 경성제국대학 도서

4) 권오봉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 황현, 『순결한 민족시인 권환』, 『신생』 1999년 겨울호, 251쪽.

6) 이순욱, 『권환의 삶과문학』, 『어문학』 95, 2007, 417~418쪽.

관에 취직해 있었다. 아버지 권오봉의 1940년 8월 25일 일기에 경완으로부터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취직했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몇 년간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근무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주장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허담은 손아래 처남이 아니라 매제다.

권오봉의 일기에 따르면 허담은 허종의 아들⁷⁾이다. 허종은 당시 김해에서 중앙인쇄소를 경영⁸⁾하고 있었다. 일제시대 인쇄소는 공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허종의 당시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정황으로 보아 당시 김해의 유력인사 배인환의 주선으로 혼사가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황현의 주장대로 권환이 매제의 집에서 요양을 할 정도로 쇠약해 있었다면 감옥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병원으로 가거나 친가에서 지냈을 것이다. 아버지 권오봉의 일기 어디에도 요양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더구나 본가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누이동생 집에서 요양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시기의 아들 경완이 몸이 안 좋아서 요양을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일기에 의하면 권환의 아버지 권오봉은 집안 대소사를 살뜰하게 살피는 가장이자 집안 어른으로 보인다. 인근의 친지 중 누군가가 설사병만 걸려도 기록을 해 두고 있다. 그런 아버지의 일기에 장자 경완이 병이 들어서 진영에 가서 요양을 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무소를 출소하여 고향에 내려오자마자 권환은 진영으로 간 행보에는 평소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권환이 출소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출소 후의 생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 것으로 짐작 된다.

7) 『성재일기』 1933. 1. 21., ‘與許鍾叙初面禮袖致吉日禮簡 허종과 초면인사를 나누었는데 길일 레간을 가져왔다.’

8) 『성재일기』 1933. 2. 1., ‘入公立印刷所 許鍾經營也’.

당시에 진영에는 그의 시집간 누이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절친 김경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간농장과 김경진, 김경진과 권오봉의 관계를 살펴보면 출소한 권환이 박간농장으로 간 소이연이 밝혀진다.

2. 박간농장행과 관련된 연구 검토

그간의 연구자들이 권환이 박간농장으로 간 사실에 주목한 바는 있지만 사유를 밝히는 것에는 실패한 것 같다.

추측컨대 행적과 관련한 기록이 없거나 이 당시에 발표한 작품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권환과 박간농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논문으로 이장렬의 학위 논문과 이순옥의 논문, 김승구의 논문 등이 있다.

“권환은 사상전향자 조직체인 대화숙에 가입하게 된다. 대화숙 관리 아래 있는 박간 김해농장에서 사감으로 일을 했다. 농장에서 오로지 땀을 흘리면서 농사일에 몰두했던 것이다”로 정리하면서 곽은희 황현 조봉제의 글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박간농장은 곽은희, 황현의 주장처럼 처남 허담의 농장이 아니라 일본인 하자마의 소유 농장이다. 또한 조봉제의 글에 있는 ‘대화숙(大和塾)’은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이 정식 명칭이다. 이 조직은 친일조직으로서 1938년 7월 24일에 결성되어 1940년 12월 28일에 해체된다. 민족운동 또는 좌익운동과 관련된 사상 전력자 중 친일 변절한 자를 맹원으로 하였으며, 그 수효는 1939년 7월 30일 현재 2,765명에 달하였다. 지부장은 서병조(徐丙朝:대구)·이승우(李升雨:경성)·현준호(玄俊鎬:광주) 등 보호관찰심사회 관계자이며, 연맹의 중심인물은 사상 전력자인 김두정(金斗禎)·김한경(金漢卿)·박영

희(朴英熙), 장덕수(張德秀) 등이었다. 1940년 12월 28일 재단법인 대화숙(大和塾)에 통합됨으로써 해소되었다.⁹⁾

위에서 보다시피 곽은희, 황현, 조봉제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권환이 박간농장에서 보낸 시기와 맞지 않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주장대로라면 권환은 친일 변절자 단체인 대화숙에 소속되어 박간농장으로 보내진 것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환이 박간농장으로 간 것은 36년의 일이고 대화숙이 결성된 것은 38년 7월 24일이다. 권환의 박간농장생활과 겹치는 기간은 약 5개월이다. 그 5개월 기간 동안 권환이 ‘대화숙’의 요원으로 활동을 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장렬 이후 발표된 김승구의 다음 논문을 보자.

“카프 2차 검거 사건으로 1년 남짓 영어 생활을 하고 풀려난 권환이 그의 고향인 마산으로 귀향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지병인 결핵과 영어 생활로 인해 악화된 그는 1936년경 마산에서 요양생활을 한다. 그리고 요양생활을 마친 그는 그의 고향근처인 박간 농장에서 농장원으로 생활한 바 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소작농으로 생활하면서 건강을 조금씩 회복해 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건강에도 자신이 생기고 카프활동에 대한 정리도 끝난 시점, 즉 대략 1939년경에 그가 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그가 귀향생활을 마감하고 귀경을 한 계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임화와의 관련성에서 그 계기를 찾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선 카프 2차 검거 때 구속당한 임화가 권환이 귀향한 시점에 마산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 동경 무산자사(無産者社)시절부터 절친한 동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이 요양생활 중 만났을 가능성은 충분하다”¹⁰⁾.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 중앙연구원). 네이버 홈페이지 지식백과 참조.
10) 김승구, 『일제말기 권환의 문학적 모색』, 『국제어문』 45, 2009, 172쪽.

권환은 1935년 12월 귀향과 동시에 박간농장으로 갔다. 따라서 위의 김승구의 결핵과 영어 생활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요양생활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박간농장에서 소작생활을 하면서 요양생활을 했다는 내용도 당시의 박간농장 관계자와 권환의 아버지 권오봉과의 관계를 보면 권환이 소작인 생활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조봉제의 말대로 농장의 관리인으로 사택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간농장은 단순히 소작인을 두고 농사짓는 소규모 영농가가 아니라 일본인의 거대 기업형 농장¹¹⁾이었기에 사택을 지어 관리직 간부를 두었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사업도 병영(并營)해 간 곳이다. 권환이 여기서 소작을 하면서 요양을 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에 권환이 출소 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양을 해야 할 정도였다면 아버지 일기 어딘가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당시의 일기 어디에도 관련된 내용은 없다.

아마도 소작을 하면서 요양을 했다는 것은 박간농장에 취직한 것을 두고 감옥살이로 인해 쇠약해진 몸도 추스릴 겸 해서 그간에 해왔던 사회활동을 접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어차피 집행유예기간이고 몸도 좀 추스려야 했기 때문에 박간농장에서 세월을 보내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이해가 된다. 엄밀히 말해 요양을 위해 박간농장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1939년 귀경을 두고 건강에 자신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도 맞지 않다.

권환이 1939년 초에 귀경을 한 것은 건강에 자신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11) 일제시기 일본인 지주는 대부분 기업가형 지주다. (최원규, 「일제하 일본인 지주의 진영농장 설립과 경영」, 『學林』 45, 2020. 98쪽).

이순욱이 권환이 김해에 머물렀던 시기를 1936~7년경부터 경성제대 도서관 사서로 근무했던 1944년 무렵까지¹²⁾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 뒷장에서 밝히겠지만 권환은 1939년 1월 9일 박간농장에서 퇴직했다. 경성제대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 8월 2일을 전후한 시기다. 1940년 8월 25일자 아버지 권오봉의 일기에 도서관에 취직했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 아버지 권오봉(權五鳳)과 박간농장(迫間農場)

김해의 박간농장은 진영과 가락 두 곳에 존재하던 일본인 농장이다. 권환은 먼저 진영농장으로 갔다가 나중에 가락농장으로 갔다.

권환의 출옥 후 박간농장 행은 아버지 권오봉의 인맥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권오봉의 인맥관계와 활동은 상상을 초월한다. 권오봉은 그의 진전면장 시절 활동과 관련한 인맥을 위시하여 대중교 인맥, 독립운동가 백산과 그 휘하와의 인맥, 배종철¹³⁾을 비롯한 동아일보 지국 관련 인맥, 신간회 조직 인맥, 민립대학 설립자¹⁴⁾ 관련 인맥, 주조공장 운영 인맥,

12) 이순욱, 「권환의 삶과 문학」, 『어문학』 95, 2007, 420쪽.

13) 배종철(裴鍾哲1895~?)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김해의 인물이다. 그의 생가 터는 당시에는 김해군 가락면 죽동이었는데 지금은 부산광역시와의 경계에 놓여 부산시에 속하게 되었다. 그는 야학을 설립하여 사회교육에 힘썼고 신문보급소를 통해 일제에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신간회, 청년회, 농민회 등을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실질적인 김해군수로 추앙을 받을 정도로 김해군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한국전쟁 초입에 행방이 묘연해 졌다고 한다(손자 배병해·부산거주 의 증언). 누군가가 석양 무렵 자전거를 타고 구포다리를 넘어가는 배종철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배종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의 행방을 두고 그가 북으로 갔을 것이라는 등과 같은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주된 거주지는 지금의 김해시 동상동이다. 이곳은 당시 형무소 근처였는데 수시로 몇 발짝 안 되는 형무소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도 할머니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지금도 김해시 동상동 시장에는 당시에 그가 경영했던 <조선물산상회>가 그대로 있다.

금융조합 운영인맥, 성군관 인맥 등등과 같이 영남 일대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맥을 형성하고 그들과 함께 수많은 사회활동을 전개한다. 심지어 정인보, 김창숙과 나아가 변영만 이가원 같은 당대의 거물들과의 교류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소위 친일파도 있고 사상범으로 지목 된 인물도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인물로 친일파 김경진이 있다. 김경진은 권오봉일기의 1932년 시작 첫 페이지에 등장한다.

김경진은 김해면장 출신이다. 권오봉과 인연을 맺은 것은 권오봉과 같은 시기에 면장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의하면 김경진(金慶鎭, 일본명: 金子典翰 金子慶鎭)은 1895년 8월23일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났다. 1923년 2월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면장에 임명되어 1928년까지 재직했다. 1924년 4월 경상남도평의회원선거에 출마하여 김해에서 당선했다. 김해면장으로 당선 중이던 1927년11월에는 경상남도 ‘동부 5군 연합면장회의’의 회장을 지냈다. 1928년 11월 쇼와(昭和)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김해면장에서 퇴직 후인 11929년에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에 에 있는 일본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 소유의 지배인으로 전직하여 1941년 10월까지 재직했다. 박간농장 지배인으로서 소작료인상, 소작권 이동 등의 수법으로 소작농민 수탈에 앞장섰다.

1937년 도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도의회 부의장에 선임되었다. 이후 김경진은 1940년 2월 내선일체실천사(內鮮一體實踐社) 경상남도 지사고문, 황국위문축제단(皇國慰問祝祭團)의 일원, 1945년 7월 전시동원단체인 조선국민의용대 경상남도 사령부참여(參與)에 선임되었다.

14) 대표적으로 동아대학교 설립자 석당(石堂) 정재환(鄭在煥1906~1976)을 꼽을 수 있다.

해방 후 1949년 4월 경상남도 부산에 재단법인 동주학원(東洲學院)을 설립하고 이사장에 취임했다가 6월 사직했다. 같은 해 8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특별검찰부에 불기소 송치되었으나 반민특위 해체로 처벌받지 않았다. 1975년 6월 5일에 사망했다.¹⁵⁾

김경진은 이밖에도 온갖 친일앞잡이를 하며 권력과 위세를 떨친 인물이다. 권오봉의 친일 행적은 없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오랫동안 김경진과의 친분을 유지해 가고 있었다. 1932년 부터 25년간 작성된 권오봉의 일기에는 김경진이 10년 이상 거의 매일이다시피 등장한다.

권환이 출옥 후 진영의 박간농장으로 간 것은 그의 아버지 권오봉과 김경진의 유대관계와 관련이 있다. 권오봉의 일기에 의하면 권환이 투옥되자 권오봉은 김경진에게도 구명을 부탁한다. 그러나 아들을 구명하기 위한 아버지의 지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34년 11월 25일 즈음에는 경완의 일(석방)이 가망 없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후 1935년 10월 11일 아들 면회를 다녀온 기록이 있다. 짐작컨대 이 때 아들과 출옥 후 거취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권환이 석방 후 곧바로 진영으로 간 것으로 보아 사전에 김경진과 논의하여 아들 권환에게 진영의 박간농장으로 갈 것을 권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권환이 투옥되기 이전부터 아버지 권오봉은 박간농장 관계자 김경진과 친분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친분으로 권환이 김해 박간 농장에 취직을 하게 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 같은 사실에 미루어 권환이 김해의 박간 농장으로 간 것은 일제의 외압에 따라 강제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권오봉의 주선과 이에 대한 수락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신분의 권환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간농장에서의 그의 활동에 관한

15)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2009,11) 웹 사이트 김경진(金慶鎭) 참조.

내용도 달리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940년 박간농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서간문¹⁶⁾은 박간농장 퇴직 이후 발표된 것으로 보여진다. 박간농장에서의 권환은 그저 형기가 만료될 때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권환과 아버지와의 관계

권경완은 권오봉의 장남이다. 권오봉의 일기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해 보면 둘 사이의 관계는 매우 돈독해 보인다. 자상하고 인자한 아버지와 효심 가득한 아들 관계로 보인다. 하루가 머다 앓고 전보나 서신을 주고받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아버지 권오봉은 묵묵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아들 경완의 구속과 관련된 일기에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아들 경완의 압색 소식¹⁷⁾을 접하자 아버지 권오봉은 백방으로 구명 운동에 나선다. 같은 해 7월 7일자 일기에는 경완의 피검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오전 9시에 서울역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려 객차를 타고 안국동 중앙인서관을 찾아가 리중건 신명균과 회포를 나누었다. 경완이가 지난 6월 20일 수색을 당해 전주지방에 압송되었는데 ‘신건설’과 혐의를 받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도 관계가 없으므로 오래 지 않아 마땅히 방면될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당장 무더위가 심하니 건강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다¹⁸⁾. 아버지 권오봉은 그가 가지고 있는

16) 이순욱, 앞의 논문.

17) 1934년 7월 1일 午前 鄭在熙自京下來 口傳完兒被檢消息.

18) 1934년 7월 7일 午前 九時 着京城驛 下車 昇客車 訪安國洞中央印書館 與李重乾申明均 叙懷慶完兒去六月二十日 被檢押送于全州地方 似是新建設派嫌疑 而毫無關係 則不久 然當放免 云云 目下蒸炎深 健康最可憂慮者也(※일기는 전반적으로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활자화 한 것이다).

전국적 인맥을 동원하여 직접적으로 전주 감옥 관계자를 만나고 구명에 나선다. 7월 14일자 일기에는 친분 있는 신문사 사람을 통해 경완 구명을 도와 줄 사람을 소개 받는 내용이 기록 되어 있다. “오전에 매일신보사를 찾아가 이상철과 면회했다. 즉석에서 전주 특과원 조강희에게 전화를 해서 경완이의 동정을 물어 보고 래일 회답을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7월 16일자 일기에는 이상철이 전화로 전주 소식을 알려 주었다고 기록해 두었고 그 사이에 김정진에게도 등기로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7월 17일에는 이상철이 소개해 준 조강희를 만나러 전주로 간다. 오전 6시 반에 이리역에서 내려 전주행으로 갈아탔다. 오전 7시 반에 전주역에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려 완산정 232-1번지의 매일신보 특과원 조강희를 찾아가 초면 인사를 나누었다. 단번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보였다. 인하여 아침밥을 내었다. 그의 삼종 동생 조기희가 같이 먹었다. 오전 11시에 조씨가 나와 함께 전주경찰부와 경찰서로 가서 거둬 애써 면회와 통신을 주선했으나 다 되지 않았다. 다만 의복과 수건을 넣어주었다. 지금은 위통으로 죽을 먹고 있다고 한다. 조씨의 별호가 소능인데 오래도록 문필에 종사한 활동가요 사교가이다. 나의 속마음을 위로하려고 한 상을 성대하게 차려주어 취하도록 마신 데다 또 배부르게 먹었다. 오후 3시에 매일신보 지국장 김정기를 찾아갔다. 그는 일찍이 충주군 지국장을 지냈는데 나이가 60에 이른다. 오후 7시에 소능이 안동지국장 박정순과 그 외 몇 사람과 더불어 나더러 전풍관으로 가져하여 저녁밥을 내었다. 취하여 돌아왔다. 부장 김용희가 동석했다.¹⁹⁾ 7월 19일에는 오후 5시 다시 소능(조강희)을 따라서 경찰부고등과장 大和田(오오다)과 부장 양성순을 찾아간다.

19) 十七日 雨曇 午前六時半 下車裏里歷 乘換全州行 同七時半 着全州驛 下車 訪完山町 二三二 一每申特派員 趙岡熙 叙初面 一見款中 因進朝飯 其三從弟趙者熙同卓 (중략) 同七時 少能與安東支局長朴正純 及其外數人 要余往全豐館 進晚餐 乘醉而還 金部長容義同座.

이후 23일까지는 계속 소능과 함께하면서 아들 경완의 구명을 위하여 애를 쓰는 내용이 들어 있다. 7월 23일에는 대화정(요카와²⁰⁾)의 횡천 경부와 양부장을 찾아 갔으나 심기가 불편하여 저녁을 굶었다고 기록해 놓았다.²¹⁾ 7월 29일에는 전북경찰부고등과에 진정서를 넣었다고 기록했다. 이같은 아버지의 아들을 구명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동년 1934년 9월 19일자에는 경찰과장 대화전과 경부 횡천에게 편지를 써서 부쳤다고 기록해 두었다. 굴욕을 무릅쓰고 아들 구명을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9월 29일에는 모른 사람의 편지를 받았는데 경완이와 같이 고생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그 사람이 누구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1934년 10월2일 경완이의 편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버지에게 보낸 옥중편지다. 내용을 기록해 두지는 않았다. 10월 6일에도 경완의 편지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리고 다시 10월 22일에 전주로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어 23일에는 소능을 만나고 경찰서 과장 대화전과 주임 횡천에게 진정서를 내고 양성순을 찾아가고 소능편에 겨울옷과 내복을 매일신보 이리지국으로 보내어 경찰서에 들여보내도록 했다는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1934년 10월 25일자 일기에는 소능과 일본인 林昌이 여관으로 찾아와서 만났고 이리서로 경완 면회를 갔으나 어제 전주경찰서로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튿날 1934년 10월 26자 일기에는 전북도청과 경찰서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숙소 진완여관으로 돌아 왔는데 오후 7시에 오후 7시에도 경찰부 부장 안등이 내방하여 경완이 편지를 직접 전해주었다. 요사이 만성 위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지금은 죽과 우유를 먹고 있다. 10원을 부쳐 달라고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예

20) 譯者 불임.

21) 同五時 訪大和町橫川警部梁部長 心氣不平 關夕飯.

여관에다 숙소를 정하고 아들을 구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는 등의 적극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일련의 행보에 드러나 있다.

1934년 11월 2일자 일기에는 오전 11시에 안동 부장을 찾아가다가 길에서 만나 몇 마디 했다. 돈 5원을 주어 넣어달라고 했다. 소능을 찾아가 잠시 담화하고 작별했다. 면 속옷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오후 1시 반에 날씨가 쾌청해졌다. 2시 반에 전주역을 출발했다. 길에서 김용희를 만나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오후 8시 반에 대전역에서 내려 군산려관에 투숙했다. 오후 12시에 비가 퍼부었다고 기록해 두었다. 빗속을 마다 않고 적극적으로 구명에 나서는 아버지의 절박한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4년 11월 25일 일기에는 아들(경환) 일이 가망 없다는 소식을 듣는다.

1935년 10월 8일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환의 일을 위임했다는 내용을 기록해 두었고²²⁾을 10월 11일 경환을 면회한다.

오전 11시에 원 변호사가 찾아와 함께 형무소로 들어가 경환이와 면회했다. 돈을 주어 입던 옷과 책을 넣어달라고 했다. (중략) 오후 10시에 전주역을 출발했다. 이진문 이영석이 전송하러 왔다. 차 안에서 빗방울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해 두었다. 자식을 면회하고 돌아가는 아버지의 착잡한 심경을 차 안에 듣는 빗방울 소리로 표현하고 있다.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버지 권오봉과 아들 권환의 사이를 짐작할 수 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절대적이었고 아버지 또한 아들에게 무조건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아버지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일일이 일기에 기록해 두었다. 전보가 왔다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도 없이 남아 있다.

이렇듯 권환의 활동 배경에는 여타의 부자관계를 넘어서 서로에 대

22) 1935년 10월 8일 변호사 원병희에게 경환 위임.

한 깊은 신뢰와 옹호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전희선은 권환의 작품 『아버지』²³⁾와 『알콜잇는 靈 잇든 尼僧의 참회담』²⁴⁾를 통해 권환의 아버지를 사회주의적 이념을 신봉하는 아버지에게 다 이입시키고 권환의 정신적 지주라는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의 사회주의적 행보가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기 위한 방식²⁵⁾인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권오봉의 27년 여 간의 일기에는 사회주의적 방식의 삶과 관련된 부분은 찾기 어렵다. 이들 작품이 발표된 시기인 1925년 무렵의 아버지 권오봉의 사회주의적 행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작품 속의 아버지를 실제 아버지의 모습에서 형상화 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권환 자신의 어떠한 언급도 없다. 권오봉은 그의 사촌 권오엽의 말대로 재력과 학식을 갖춘 선비²⁶⁾로서 당대 지역사회의 지도자적 삶을 살았던 인물임이 분명하다. 이 사실은 그의 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기서 아버지의 삶이 권환의 사회주의자 방식의 삶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아버지 권오봉의 행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일기는 대부분이 누구를 만나는 일로 점철되어 있다. 무엇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서 담화를 하고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어디로 가로 하는 내용이 전부를 이루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 보통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활발한 인적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은 6,70리를 걸었다고 기록해 놓기도 했다. 여기에는 친일파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독립운동가도 있다. 따라서 권오봉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권오봉의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23) 『신소년』 1925년 7월 9월호 연재.

24) 『학조』 2호, 1927.

25) 전희선, 「권환의 행보와 아버지 존재의 관계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4, 2014, 222쪽.

26) 황현, 「현실, 그 갈등과 성찰의 공간」, 『오늘의 문예비평』 29, 1998, 145쪽(전희선, 「권환의 행보와 아버지 존재의 관계 연구」, 223쪽 재인용).

과의 교류를 보면 권오봉은 편중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사회주의자적 면모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가 친일파 김경진과의 교류다. 그렇게 오랜기간 김경진과 교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친일을 한 행적은 없다. 한편으로는 백산 안희재를 만나기 위해 몇 번의 암행적 시도를 하고 독립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재력가들을 끊임없이 찾아가 만난다.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일기 어디에도 사회주의자적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적을 볼 때 다소 젊은 나이의 권환의 작품의 사회주의자의 모델을 실제 아버지 권오봉으로 이해 한 것은 지나친 추측이 아닌가 한다.

IV. 박간농장 퇴직 후

권환의 말기 문학에 관한 연구에서 권환의 공백기 직후 행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여기에도 추측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 더러 있다.

먼저 이장렬은 그의 박사논문에서 1939년 경성으로 이주한 뒤 경성 제국대학 도서관 사서로 일했다²⁷⁾고 단정하였고 이순욱은 권환의 이주 시기를 1939년 이후로 추정²⁸⁾하고 있다. 김승구는 1939년 상경이후 권환이 어떤 자리에 일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1944년에 발간한 시집 말미 프로필에 경성제국사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언제부터 근무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²⁹⁾ 이처럼 공백기 이후의 권환의 행적과 이력에 대해서도 공백기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연구 되지 않았다.

27) 이장렬, 『권환문학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20쪽.

28) 이순욱, 「권환의 삶과 문학활동」, 『어문학』 95, 2007, 418~420쪽 참조.

29) 김승구, 앞의 논문, 174쪽.

김승구는 임화가 권환이 문단에 재 진입 하는데 후원자로서 기능했다고 단정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이 또한 추정일 가능성이 높다. 귀경과 문단의 재 진입은 누구의 권고에 따라서 이루어 졌다고 보다는 권환의 자발적인 소신과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아버지 권오봉의 일기에는 1939년 1월 9일에 박간농장을 퇴직하였고 1월 16일 오후 8시에 서울로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어 1939년 2월 19일(음력1월1일)에는 경완 내외가 내려와서 설을 쇠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1939년 9월 12일에 기록에는 산업금융주식회사에서 삼백원을 빌려 서울 경완에게 부쳤다는 기록이 있다. 권환의 행적은 주로 아버지와 의 상의가 전제되어 있다. 항상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부자지간이었음을 일기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백원의 용처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집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경 후 1939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에 『예술의 골육』이라는 칼럼을 통해 자신의 예술관을 개진 한다³¹⁾. 이로써 그간의 공백기에 가졌던 성찰의 일단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임화의 후원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이라는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 아버지의 물질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 아버지 권오봉의 일기에는 1939년 8월 11일 조선일보에 들어가 경완이를 잠시 만났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시 1940년 11월 10일 기에는 조선일보에 전화했더니 경완이 1시간 전에 퇴근했다고 한다는

30) 김승구, 앞의 논문, 174쪽.

31) 이에 앞서 1939년 1월 15일 조선일보의 시단전망에 윤곤강의 <“뺨다귀의 포엠”이라는 이야기를 남겨놓고 행방불명이 되었던 권환이 얼굴을 내밀고>라는 글이 있다. 이것은 권환이 1939년 1월 19일 박간 농장을 퇴직하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 조선일보 사 취직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아닌가 한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시 1939년 1월10일자 기록을 보면 1939년 1월 9일 박간농장을 퇴직한 권환이 오전 7시반에 김경진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권환과 김경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신건설 사건으로 투옥 되고 풀려난 이후 권환의 박간농장행에는 김경진과의 관계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39년 1월 22일의 일기에는 어제 21일에 권경완을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추정컨대 권환의 조선일보 취직과 관련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정리하자면 1939년 1월 9일 박간농장을 퇴직한 권환은 곧바로 조선일보에 취직을 했고 이것은 아버지와 친분을 맺고 있었던 김경진의 도움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백기 이후의 권환의 행적에 관한 연구에서 그의 문단활동이 임화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는 김승구의 주장은 이러한 관계가 먼저 고려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리고 1940년 8월 25일 권오봉의 일기에는 경완이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취직했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사서로 근무했다는 이장렬의 주장에는 정확히 1940년 8월 23- 4일 경이라는 날짜를 추가해야 한다. 귀경 후 곧바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 귀경 후 권환이 곧바로 취직한 곳은 《조선일보사》였다는 사실을 추가한다.

V. 결론

권환의 공백기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먼저 신문기사를 토대로 극단 신건설의 가담과 활동 과정을 거쳐 투옥되어 옥중에서 보낸 시기를 한 시기로 보았고 그 다음 출옥 후의 행보

인 박간농장 살이 시기를 한 시기로 보았다. 투옥기간은 1934년 6월 20일부터 35년 12월 19일 까지다. 박간농장 생활기간은 1936년 1월 5일부터 1939년 1월 9일까지다.

전대의 공백기는 일제의 프로문화예술 탄압에 의한 옥중수형기간으로 정리하였고 후대의 공백기는 집행유예기의 박간농장 재직시기로 정리했다. 이 두 공백기는 일제의 탄압에 따른 활동중지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리된다.

권환의 감옥살이 기간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박간농장 재직기간은 상황에 따라 타협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박간농장 행은 법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외부활동이 차단되는 시점에서 아버지의 활동인맥을 통해서 선택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환은 이와 같은 공백기를 거치고 1939년 1월 16일 귀경하여 활동을 재개한다. 권환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공백기는 향후 전개되는 그의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고 공백기 이후 그가 보여주는 행보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박간농장에서 집행유예기간을 보낸 권환은 곧바로 조선일보사에 취직을 하였고 이어 1940년 8월 23- 4일 무렵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취직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 같은 행보는 프로문학기의 그의 활동과는 다소 방향을 달리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짧지 않은 공백기에 자신과 시대에 대한 현실적인 성찰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 참고문헌 |

1. 신문자료

『조선일보』

- 1933년 1월 7일자 기사
- 1934년 5월 17일자 기사
- 1934년 6월 23일자 기사
- 1935년 1월 26일자 기사
- 1935년 11월 26일자 기사
- 1935년 12월 10일자 기사

『동아일보』

- 1932년 8월 7일자 기사
- 1932년 10월 13일자 기사
- 1933년 11월 22일자 기사
- 1934년 4월 16일자 기사
- 1934년 5월 2일자 기사
- 1934년 7월 4일자 기사
- 1934년 11월 23일자 기사
- 1935년 6월 5일자 기사

2. 논문

- 김승규, 「일제말기 권환의 문학적 모색」, 『국제어문』 45, 2009.
- 이순욱, 「권환의 삶과문학」, 『어문학』 95, 2007.
- 이장렬, 『권환문학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전희선, 「권환의 행보와 아버지 존재의 관계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4, 2014.
- 최원규, 「일제하 일본인 지주의 진영농장 설립과 경영」, 『學林』 45, 2020.
- 황 현, 「순결한 민족시인 권환」, 『신생』 1999년 겨울호.
- 황 현, 「현실, 그 갈등과 성찰의 공간」, 『오늘의 문예비평』 29, 1998.

3. 저서 및 일기

유장근, 『마산의 근대사회』, 불휘미디어, 2020.5.

『백산의 동지들』, 부산일보사 기획출판국, 1998.3.

權五鳳, 《誠齋日記》(1932~1957, 역주 성재일기 발간 추진위원회 소장)

4. 잡지

『신소년』 1925년 7월 9월호

『학조』 2호, 1927

5. 인터넷 포털 및 휴대 전화 앱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 베이스》(인터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 중앙연구원)》(네이버 홈페이지, 지식백과)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11)》(앱 홈페이지)

투고일 : 2021. 10. 21. 심사완료일 : 2021. 11. 22. 게재확정일 : 2021. 12. 07.

| Abstract |

A review of poet Kwon Hwan's suspension of activities
 - From prison life to life at a Bakgan farm -

Lee, Hong-Sook

As is well known, there is a break in Kwon Hwan's activities. In addition to arrest on June 20, 1934, the retirement period of Bakgan Farm on January 9, 1939 is the period. This period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periods. One is the period of imprisonment due to arrest, and the other is the period of life at a night farm after discharge. Kwon Hwan's participation in 《New Construction》 was the direct cause of prison life. Kwon Hwan, who had been active, including KAPF activities, reported in Chosun Ilbo on June 23, 1934 that new construction executives of left-wing theater companies were arrested on June 21, and that Kwon Hwan's father was searched on July 1 of the same year and sent to Jeonju Law.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Kwon Hwan's hiatus began on June 20, 1934. And on December 9, 1935, after going through the trial process, he was sentenced to one year and eight months in prison and two years of probation. Kwon Hwan returns to his hometown of Oseo-ri, Jinjeon-myeon, Changwon-gun, Gyeongsangnam-do on December 30, 1935. He then went to Jinyoung in Gimhae-gun, Gyeongsangnam-do on January 4, 1936, visited his father on January 5, and returned to Jinyoung Farm immediately. Kwon Hwan's trip to the camp does not seem to have gone to his sister's house to heal, but to have gotten a job at a Bakgan farm. It can be said that it originated from the long-standing friendship between his father Kwon Oh-bong and farm manager Kim Kyung-jin, and it is understood that Kwon Hwan had promised each other

before coming down to his hometown. Kwon Hwan goes back to Bakgan Farm in Garak-myeon, Gimhae-gun on July 9, 1936. From here, on January 9, 1939, he retired from Parkgan Farm and immediately went to Seoul. This is Kwon Hwan's break. It is summarized that the period of probation after release was spent on a night farm. The above facts are summarized based on the facts recorded in the diary of his father, Kwon Oh-bong. It can be summarized that Kwon Hwan, who went to Seoul after the hiatus, got a job at Chosun Ilbo. This is because in the father's diary, there is a content in which the father goes to Seoul and calls the Chosun Ilbo to meet his son to check whether he is leaving work or not. This is also supported by the fact that Kim Kyung-jin, a powerful man at the time, will also go to Seoul to meet Kwon Hwan shortly after Kwon Hwan's coming to Seoul. On August 25, 1940, his father's diary that he received a letter from Gyeongwan that he had a job at Kyungseong Imperial University is summarized as a post-retirement course of Chosun Ilbo.

Kwon Hwan summarized that during the break, the trip to the Parkgan Farm was absolutely carried out in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It was found that he spent the probation period in charge of the management position of the Bakgan Farm, relying on his father's connections.

Key Words : Poet Kwon Hwan. poet Kwon Hwan's suspension of activities, KAPF activities, Parkgan Farm, Kwon Obong, Garak-myeon Gimhae-gun, and Jinjeon-myeon Changwon-gun.